

## 식생활 의식과 식습관이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

한재숙 · 홍상욱 · 김정숙 · 이정림 · 허성미\*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안동전문대학 식품과학과\*

### The Effect of Dietary Awareness and Dietary Habits on the Reduction and Recycling of Food Waste Products

Jae-Sook Han, Sang-Ook Hong, Jeong-Sook Kim, Jung-Lim Lee and Sung-Mee Huh\*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Yeungnam University*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ong Junior College\**

####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ousewives' dietary awareness and habits on the reduction and recycling of food waste products. We have done statistical analyses of 501 questionnaires answered by housewives living in Taegu c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dietary awareness i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housewives' ages. The group of above 50's age, and the group of housewives and their husbands with a lower education level have a more traditional awareness and eating up habits. Also the younger group, and those with a higher education level who grew up in a big city have a more progressive dietary awareness. But the younger, higher income, small family, higher education level groups, and also employed housewives, produced more food waste products than the other groups. The groups those have traditional or rational awareness concerning dietary awareness, and those with good eating up and accurate cooking habits turned out to have more affirmative effects on the reduction and recycling of food waste products.

---

Key words: Dietary awareness and dietary habits, Reduction and recycling of food waste products.

## I. 서 론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에서도 지속적인 산업화·도시화·인구증가로 인하여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이 급속히 발생되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환경오염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됨으로써 환경문제는 이제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sup>1) 2)</sup>

환경문제 중에서도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것은 쓰레기 문제이다. 이는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은 점차 단축되어 가고 있는데 비해 쓰레기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음식물 쓰레기이다.<sup>3)</sup>

우리 나라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중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19,764톤이 생성되며 이 양은 전체 쓰레기량의 31%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은 해마다 증가되어 2001년에는 하루 평균 33,940톤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44.2%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1인당 1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0.47kg으로 영국 0.26kg, 대만 0.44kg, 일본 0.30kg, 미국 0.16kg 등과 비교해 볼 때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다.<sup>4)</sup>

이러한 현상은 예로부터 꾸집힌 상차림을 좋아하고 음식을 남기는 것을 예의로 생각했던 우리의 식습관상 남겨지는 음식물은 많으나 최근에 들어 가족형태의 변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식생활 양식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기 보다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산업화의 진전과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생활의 질적 향상은 영양의 과잉 섭취로 인한 비만이나 외식의 무분별한 증가를 초래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 해결이나 국민건강을 고려해 볼 때 올바른 식생활 문화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sup>5)</sup>

환경오염은 근본적으로 인간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므로, 인간행동의 통제에 환경오염의 해결 여부

가 달려있게 된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해결에는 인간사회화의 기본 장이면서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중시되며, 주부는 가정의 관리자로서 환경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주체자, 교육자 및 양육자, 지역 주민, 전문가·의사 결정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sup>6)</sup>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존 의식에 관한 논문을 보면, 이승신 등<sup>1)</sup>은 환경교육경험이 있고,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환경상품광고와 환경관련기사 및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이 높은 주부들이 환경보존능력의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홍기남<sup>2)</sup>은 주부의 생활환경문제에 대한 행동수준은 연령이 낮고, 교육연수가 높고, 가장의 직업이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며, 고소득층일수록 수행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정우 등<sup>3)</sup>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 주부들의 생활환경문제에 대한 관리행동 수준은 보통이며, 연령이 낮고, 전업주부이며, 가정생활만족도가 높고, 가사노동에 대해 가치있게 생각하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일수록 생활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식도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의식이나 관리행동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sup>10) 11)</sup>가정을 중심으로 배출되는 실제적인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실태와 주부들의 식생활의식 및 습관을 관련지워 연구한 논문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낭비없는 식생활 자원의 확립과 활용이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 정립의 지름길이라 보고 가정의 식생활 담당자인 주부들의 식생활 의식과 식생활습관 및 도시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의 감량과 재활용의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문제점을 나각도로 조사 검토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문제와 나아가서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대구시 소재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어머니와 주부모임을 통하여 미리 준비된 질문지를 배포하여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였으며 본 조사는 199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 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자기 기입식 질문지로 선행 연구<sup>10,11)</sup>를 참고로 하여 재구성하였고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배부된 질문지는 600부였고, 회수된 530부(88.3%) 중 내용기재가 부실한 것을 제외한 501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문항의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식생활 의식은 Cronbach  $\alpha$ =.5713, 식습관은 Cronbach  $\alpha$ =.6024, 음식물 쓰레기 배출은 Cronbach  $\alpha$ =.7504,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은 Cronbach  $\alpha$ =.6339이었다.

질문지의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식생활 의식, 식습관,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에 대한 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단 음식물 쓰레기 배출은 점수가 높을수록 배출량이 많음을 의미한다.

### 3. 조사자료의 처리

본 조사자료는 SPSS/PC+ 4.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빈도와 백분율, 요인분석, one-way Anova와 Scheffe test, correlation과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2.1세이고 30~40대가 대부분이었다. 가족형태로는 핵가족이 83.2%였고, 주부의 학력은 고졸이 52.5%, 남편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45.0%로 가장 많았다. 가족수가 3~4명인 경우가 56.8%였고, 전업주부가 63.3%, 취업주부가 36.7%였다. 주성장지로는 대도시 40.2%, 농·어촌 30.8%, 중·소도시 29.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894,300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 1,911,100원(통계청 통계자료, 1995)<sup>12)</sup>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 2. 가족환경변인에 따른 식생활 의식

요인 분석 결과 식생활 의식에 관련된 변인은 4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졌으며, 전체 설명력은 55%였다(Table 2). 제 1요인은 식사시에는 약간 적은 듯하게 먹는 것이 좋다(R1), 식품구매시 같은 가격에서는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 하는 것이 좋다(R2), 식사시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R3), 식품구매는 반드시 계획구매를 하는 것이 좋다(R4) 등의 4문항으로 이것을 합리적 의식형이라 명명했으며, 제 2요인은 음식물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T1), 하루 세 끼는 반드시 집에서 먹는 것이 좋다(T2) 등의 2문항이었고 이것은 전통적 의식형이라 명명했다. 제 3요인은 식사준비에 들어가는 시간을 가능한한 줄이도록 해야 한다(P1), 집에 손님을 초대할 경우 음식은 먹고 남지 않도록 차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P2) 등의 2문항으로 진보적 의식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제 4요인은 남의 집에 초대되었을 경우 음식을 남기는 것을 예의라 생각한다(D1), 실제 가정의 상차림은 간소해야 한다(D2) 등의 2문항으로 이것은 갈등적 의식형이라 명명하였다.

가족환경변인에 따른 식생활 의식의 차이를 요인별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통적 의식형은 주부의 연령( $p < .05$ ), 주부의 학력( $p < .01$ )과 남편의 학력( $p < .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주부의 연령에서는 50대 이상이 가장 전통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부의 학력에서는 중졸 이하집단이 고졸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p < .01$ ), 남편의 학력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Group	N(%)	Variable	Group	N(%)
Age	20~29	31( 6.2)	The number of family	1~2	21( 4.2)
	30~39	150( 29.9)		3~4	284( 56.8)
	40~49	256( 51.1)		5~6	179( 35.8)
	50~	64( 12.8)		7~	16( 3.2)
	Total	501(100.0)		Total	500(100.0)
Type of family	Nuclear	416( 83.2)	Job	None	317( 63.3)
	Extended	84( 16.8)		Have	184( 36.7)
	Total	501(100.0)		Total	501(100.0)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34( 26.9)	Main region of growth	Big city	198( 40.2)
	High school	262( 52.5)		Small·medium city	143( 29.0)
	Junior college~	103( 20.6)		Farm·Sea village	152( 30.8)
	Total	499(100.0)		Total	493(100.0)
Education level of husband	Middle school	59( 12.4)	Household Income (₩10,000)	~80	24( 4.8)
	High school	203( 42.6)		80~130	109( 21.9)
	Junior college~	214( 45.0)		130~180	154( 30.9)
	Total	476(100.0)		180~230	98( 19.7)
				230~	113( 22.7)
			Total	498(100.0)	

**Table 2.** Factor analysis of criteria for dietary awareness

Factor	Item	Factor Loading				Communa- lity
		1	2	3	4	
1. Rational awareness	R1	.74293	.00617	.05778	-.29233	.64079
	R2	.70605	-.09761	.04251	.20874	.55341
	R3	.43857	.42753	.19785	.07155	.41939
	R4	.42679	.41355	.03382	.22165	.40345
2. Traditional awareness	T1	.02256	.75223	-.03050	-.05285	.57008
	T2	.06947	.61960	.07910	-.05231	.39773
3. Progressive awareness	P1	.01519	-.05638	.82275	-.04894	.68272
	P2	.14750	.16382	.69516	.09011	.5399
4. Discordant awareness	D1	.25903	.05485	.23372	.72405	.64898
	D2	.33953	.17176	.31587	-.63231	.64437
Eigen value		2.19529	1.16527	1.10072	1.03959	
Pct of Var		22.0	11.7	11.0	10.4	
Cum Pct		22.0	33.6	44.6	55.0	

서도 중졸 이하가 고졸과 대졸 이상의 집단에 비해 보다 전통적 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적 의식형은 주부의 연령( $p < .001$ ), 주 성장지( $p < .01$ ), 가족수( $p < .05$ ), 주부의 학력( $p < .001$ )

및 남편의 학력( $p < .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주부의 연령에서는 20대가 30대·40대보다 진보적 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수가 1~2명인 경우와 주부의 학력과 남편의 학력이 중졸 이

**Table 3.** Dietary awareness according to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Variable	Group	Rational			Traditional			Progressive			Discordant			Total							
		N	M	S.D.F., Scheffe'	N	M	S.D.F., Scheffe'	N	M	S.D.F., Scheffe'	N	M	S.D.F., Scheffe'	N	M	S.D.F., Scheffe'					
Age	20~29	31	4.04	.47	31	3.10	.87	31	4.12	.94	<sup>a</sup>	31	4.06	.49	31	3.88	.47				
	30~39	147	3.95	.45	.64	150	3.40	.81	3.20*	149	3.56	.80	6.95*** <sup>b</sup>	149	4.01	.51	2.28	145	3.77	.39	3.22*
	40~49	251	3.92	.48	253	3.30	.72	254	3.50	.75	<sup>b</sup>	254	3.88	.57	247	3.70	.39				
	50~	63	3.92	.53	64	3.56	.90	64	3.73	.64		64	4.00	.51	63	3.83	.42				
Type of family	Nuclear	409	3.93	.47	.81	414	3.34	.77	.03	414	3.58	.77	.00	415	3.93	.54	1.02	406	3.74	.39	.82
	Extended	82	3.98	.50	83	3.36	.81	84	3.58	.84		83	4.00	.53	80	3.78	.40				
Main region of growth	Big city	195	3.95	.46	198	3.26	.77	197	3.69	.77	<sup>a</sup>	198	3.96	.55	194	3.76	.38				
	Small-medium city	139	3.96	.42	.15	143	3.36	.79	1.99	142	3.65	.76	5.26**	142	3.99	.52	.76	138	3.78	.36	.81
	Farm-Sea village	150	3.93	.50	149	3.43	.79	152	3.43	.76	<sup>b</sup>	151	3.91	.50	147	3.72	.40				
House hold	~ 80	23	3.89	.53	23	3.48	.82	23	3.37	.73		23	3.98	.61	22	3.72	.39				
	80~130	107	3.90	.48	109	3.45	.80	109	3.62	.73		108	3.97	.52	106	3.76	.38				
Income (₩10,000)	130~180	151	3.99	.42	1.23	153	3.34	.69	1.58	153	3.59	.73	.61	154	3.96	.50	.16	149	3.77	.37	.20
	180~230	97	4.00	.47	97	3.20	.89	97	3.64	.79		97	3.92	.54	95	3.75	.38				
	230~	111	3.91	.48	113	3.35	.79	113	3.58	.88		113	3.96	.56	111	3.74	.41				
The number of family	1~2	21	3.93	.46	21	3.29	.87	21	4.02	.80		21	4.02	.70	21	3.84	.43				
	3~4	278	3.96	.49	1.06	281	3.31	.81	1.04	283	3.53	.83	3.86*	283	3.94	.57	.63	274	3.73	.42	2.20
	5~6	177	3.94	.47	179	3.43	.74	178	3.66	.71		178	3.98	.49	176	3.79	.35				
	7~	15	3.73	.61	16	3.19	.81	16	3.31	.75		16	3.81	.57	15	3.56	.39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31	3.89	.47	132	3.53	.78	<sup>a</sup>	133	3.55	.72	<sup>a</sup>	133	3.94	.52	129	3.76	.40			
	High school	259	3.93	.49	2.08	261	3.27	.79	5.34** <sup>b</sup>	260	3.51	.79	7.45*** <sup>a</sup>	260	3.94	.55	.66	255	3.72	.40	2.68
	Junior college~	100	4.02	.43	103	3.29	.76	103	3.85	.80	<sup>b</sup>	103	4.01	.55	100	3.83	.37				
Education level of husband	Middle school	59	3.89	.49	59	3.60	.74	<sup>a</sup>	59	3.51	.70		58	3.97	.49	58	1.50	.50			
	High school	198	3.96	.41	.74	201	3.44	.75	105.*** <sup>a</sup>	201	3.51	.77	3.92* <sup>a</sup>	202	3.93	.53	.91	196	1.46	.50	1.05
	Junior college~	210	3.97	.46	213	3.16	.81	<sup>b</sup>	213	3.71	.79	<sup>b</sup>	213	4.00	.53	207	1.53	.50			
Job	None	314	3.97	.47	3.32	315	3.34	.78	.00	313	3.55	.75	2.01	314	3.96	.51	.11	310	3.76	.39	.35
	Have	177	3.89	.50	182	3.35	.80	184	3.66	.84		184	3.94	.60	176	3.74	.42				

\*: p&lt;.05, \*\*: p&lt;.01, \*\*\*: p&lt;.001

하와 고졸인 경우보다 대졸 이상인 경우가 진보적 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부의 주 성장지가 대도시인 경우가 농·어촌의 경우보다 진보적 의식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가족환경변인에 따른 식습관

식습관에 관련된 변인을 요인 분석한 결과 남기지 않는 식습관, 남기는 식습관, 정확한 조리습관의 3개 요인으로 나누어졌으며 전체 설명력은 58.8%였다(Table 4). 제1요인은 남은 음식을 버리면 아까우므로 가능하면 다 먹는다(E1), 위생면과 비만 등이 걱정되나 남은 음식을 버릴 수가 없다(E2)의 2분항으로 남기지 않는 식습관이라 명명하였고, 제2요인

은 가족들이 식사를 할 때 음식을 자주 남기는 편이다(L1), 가족이 실제 먹는 양보다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많이 차리는 편이다(L2), 사녀들에게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L3)의 3분항으로 남기는 식습관이라 명명하였다. 또한 제3요인으로 평소 식단을 작성해서 식사계획을 세운다(A1), 식사준비를 할 때 계량기와 계량컵을 사용한다(A2), 번기로우나 식단 작성은 꼭 필요하다(A3) 등의 3분항은 정확한 조리 습관이라 명명하였다.

가족환경변인에 따른 식습관의 차이를 요인별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남기지 않는 식습관은 주부의 연령(p<.01), 주부의 학력(p<.05), 남편의 학력(p<.01)과 주부의 취

**Table 4.** Factor analysis of criteria for dietary habits

Factor	Item	Factor Loading			Communality
		1	2	3	
1. Eating up habits	E1	.87848	.05076	-.02138	.77477
	E2	.85848	-.02080	.02322	.73796
2. Leaving habits	L1	-.03109	.80795	.05510	.65678
	L2	-.13316	.70989	.12686	.53777
	L3	.18580	.54208	.06218	.33224
3. Accurate cooking	A1	-.02884	.09277	.80030	.64992
	A2	-.05624	-.03299	.75078	.56793
	A3	.13163	.31427	.57688	.44888
Eigen value		1.96270	1.58180	1.16175	
Pct of Var		24.5	19.8	14.5	
Cum Pct		24.5	44.3	58.8	

업유무( $p < .05$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50대 이상의 주부가 다른 연령의 주부들보다 남기지 않는 식습관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주부와 남편의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전업주부일수록 남기지 않는 식습관의 점수가 높았다.

남기는 식습관은 주부의 연령( $p < .001$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남기는 식습관 점수가 높았고 20·30대 주부집단과 50대 이상의 주부집단은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음식에 대한 애착을 갖기 보다는 신체적인 미적 균형에 보다 관심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정확한 조리습관은 가족환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2.5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여 우리의 식습관에서 정확한 조리습관

**Table 5.** Dietary habits according to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Variable	Group	Eating up habit				Leaving habit				Accurate cooking habit				Total			
		N	M	SD	F.Scheffe'	N	M	SD	F.Scheffe'	N	M	SD	F.Scheffe'	N	M	SD	F.Scheffe'
Age	20~29	31	2.93	.98	<sup>a</sup>	28	3.55	.77	<sup>a</sup>	31	2.37	.84		28	2.95	.64	
	30~39	149	3.31	.86	4.68**	149	3.48	.60	5.93***	147	2.43	.63	1.64	145	3.04	.41	2.08
	40~49	252	3.27	.77	<sup>b</sup>	252	3.35	.59		253	2.30	.55		249	2.94	.39	
	50~	64	3.59	.92		64	3.12	.67		64	2.26	.72		64	2.91	.49	
Type of family	Nuclear	413	3.30	.86	.23	410	3.39	.63	2.20	411	2.32	.62	1.74	405	2.97	.44	.00
	Extended	83	3.31	.77		82	3.28	.54		84	2.42	.61		81	2.97	.35	
Main region of growth	Big city	195	3.27	.84		192	3.38	.63		196	2.31	.58		190	2.96	.45	
	Small-medium city	143	3.25	.84	.92	142	3.43	.59	1.09	143	2.36	.66	.25	142	2.99	.41	.18
	Farm-Sea village	151	3.37	.84		151	3.32	.64		149	2.35	.64		147	2.97	.44	
Household Income (₩10,000)	~ 80	23	3.50	.71		24	3.35	.65		22	2.42	.63		22	3.03	.45	
	80~130	107	3.38	.83		107	3.50	.63		107	2.43	.74		105	3.07	.48	<sup>a</sup>
	130~180	153	3.36	.80	1.47	151	3.40	.59	1.95	154	2.36	.53	1.08	150	3.00	.40	3.57**
	180~230	97	3.19	.91		97	3.34	.66		97	2.30	.68		96	2.91	.43	<sup>b</sup>
	230~	113	3.22	.87		111	3.27	.64		112	2.27	.56		110	2.87	.42	
The number of family	1~2	21	3.10	1.02		19	3.44	.70		21	2.29	.79		19	2.92	.57	
	3~4	281	3.29	.89	1.26	281	3.41	.65	1.35	280	2.34	.62	.53	277	2.98	.45	.58
	5~6	178	3.38	.76		176	3.31	.59		178	2.33	.61		174	2.96	.40	
	7~	16	3.09	.79		16	3.52	.54		16	2.67	.66		16	3.10	.44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34	3.48	.79	<sup>a</sup>	133	3.36	.59		132	2.30	.60		131	2.99	.42	
	High school	258	3.27	.82	4.37**	259	3.36	.62	.51	259	2.33	.63	1.00	254	2.95	.43	.55
	Junior college~	103	3.18	.95	<sup>b</sup>	100	3.43	.68		100	2.41	.63		100	2.99	.45	
Education level of husband	Middle school	59	3.61	.73	<sup>a</sup>	59	3.43	.55		59	2.32	.63		59	3.06	.39	
	High school	200	3.33	.81	6.17**	199	3.38	.63	.19	200	2.35	.64	.07	195	2.98	.42	1.75
	Junior college~	213	3.18	.90	<sup>b</sup>	211	3.38	.63		213	2.35	.61		209	2.94	.45	
Job	None	312	3.36	.80	3.87*	311	3.40	.62	1.05	312	2.34	.62	.00	305	2.99	.43	2.50
	Have	183	3.21	.92		181	3.34	.63		182	2.34	.63		180	2.93	.44	

\*:  $p < .05$  \*\*:  $p < .01$  \*\*\*:  $p < .001$

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4. 가족환경변인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배출

음식물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식품을 너무 많이 샀거나 오래 보관하다가 그대로 버린 경험이 있다(3.42), 조리할 때 다듬는 과정에서 버리는 음식쓰레기가 많다(3.10), 음식물중 식사하고 난 뒤 남아 버리는 음식쓰레기가 많다(3.10), 다음에 먹으려고 보관했다 그냥 버리는 음식이 많다(2.40),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쓰레기와 분리하지 않는다(3.16), 주식류(밥, 면류 등)가 남아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2.06), 국·찌개류 등이 남아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2.46), 전·조림·튀김·나물 등이 남아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2.17), 김치류가 남아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1.90), 구이·육류·어패류 등을 이용한 음식이 남을 때 음식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많다(2.32)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가족환경변인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은 주부의 연령(p<.05), 월평

균 소득(p<.01), 가족수(p<.05), 직업 유무(p<.05), 주부의 학력(p<.001) 및 남편의 학력(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주부의 연령에서는 20대가 50대 이상보다 집단간에 유의미하게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대가 50대 이상보다 남기는 식습관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볼 때 20대가 남긴 음식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버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환경관리행동을 보인다는 노영화<sup>1)</sup> 등의 연구와, 젊은 연령층이 근검절약보다는 편의주의적인 생활양식을 추구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부지런하고 알뜰한 생활양식을 추구한다고 한 손희정<sup>17)</sup>의 연구와 비슷하였으나 홍기남<sup>8)</sup>의 연구에서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적극적인 환경관리 행동을 보인다는 보고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월평균 소득에 있어서 소득이 높을수록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경향을 나타내었고 230만원 이상이 80만원 이하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환경의식이 높았다고 한 강성진 등<sup>11)</sup>과, 최남숙

Table 6. Exhausting score of food waste products according to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Variable	Group	Exhausting score of food waste product				Variable	Group	Exhausting score of food waste product			
		N	M	SD	F,Scheffe'			N	M	SD	F,Scheffe'
Age	20~29	31	2.72	.54	2.94*	The number of family	1~2	21	2.77	.57	2.88*
	30~39	144	2.52	.45			3~4	271	2.55	.48	
	40~49	245	2.54	.47			5~6	173	2.48	.47	
	50~	62	2.41	.49			7~	16	2.43	.54	
Type of family	Nuclear	398	2.53	.49	.46	Job	None	306	2.50	.49	2.83*
	Extended	83	2.49	.44			Have	175	2.58	.47	
Main region of growth	Big city	188	2.57	.49	2.07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30	2.39	.49	8.54*** <sup>a</sup> <sub>b</sub>
	Small·medium city	138	2.54	.49			High school	250	2.57	.47	
	Farm·Sea village	149	2.46	.47			Junior college~	101	2.63	.48	
Household Income (₩10,000)	~ 80	22	2.35	.50	3.90**	Education level of husband	Middle school	57	2.34	.43	7.13*** <sup>a</sup> <sub>b</sub>
	80~130	107	2.40	.52			High school	193	2.51	.50	
	130~180	148	2.56	.43			Junior college~	209	2.60	.47	
	180~230	95	2.58	.49							
	230~	107	2.61	.48							

\*: p<.05 \*\*: p<.01 \*\*\*: p<.001

**Table 7.** Reduction and recycling of food waste products according to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Variable	Group	Reduction				Recycling				Reduction and recycling			
		N	M	SD	F,Scheffe'	N	M	SD	F,Scheffe'	N	M	SD	F,Scheffe'
Age	20~29	31	4.16	.54		31	3.33	.71		31	3.92	.46	
	30~30	142	4.05	.48	.89	149	3.55	.62	1.11	141	3.90	.43	.11
	40~49	254	4.02	.47		255	3.53	.62		253	3.88	.39	
	50~	61	4.01	.45		64	3.58	.76		61	3.88	.39	
Type of family	Nuclear	405	4.03	.48	.00	414	3.49	.66	8.76	403	3.88	.41	1.68
	Extended	82	4.04	.45		84	3.72	.58		82	3.94	.38	
Main region of growth	Big city	193	4.08	.48		198	3.55	.66		193	3.93	.43	
	Small·medium city	140	3.99	.41	1.32	141	3.56	.58	.37	138	3.87	.34	.82
	Farm·Sea village	147	4.04	.52		152	3.50	.72		147	3.89	.43	
Household Income (₩10,000)	~ 80	22	4.17	.37		24	3.69	.59		22	4.05	.31	
	80~130	108	4.04	.54		109	3.55	.61		108	3.90	.47	
	130~180	150	4.04	.48	.83	152	3.54	.66	.83	148	3.90	.38	1.01
	180~230	94	4.06	.45		98	3.45	.68		94	3.89	.39	
	230~	111	3.99	.45		113	3.57	.67		111	3.86	.41	
The number of family	1~2	20	4.23	.53		21	3.17	.71	<sup>a</sup>	20	3.94	.45	
	3~4	275	4.02	.51		282	3.51	.67	3.69*	273	3.87	.44	.63
	5~6	176	4.05	.42	1.38	179	3.60	.62	<sup>b</sup>	176	3.93	.36	
	7~	16	3.96	.36		16	3.75	.58		16	3.91	.32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28	4.00	.49		134	3.55	.68		128	3.87	.42	
	High school	256	4.05	.46	.76	260	3.53	.66	.06	254	3.90	.38	.51
	Junior college~	102	4.07	.49		103	3.53	.61		102	3.92	.43	
Education level of husband	Middle school	59	3.64	.55		54	4.07	.47		54	3.94	.39	
	High school	202	3.51	.69	.96	200	4.05	.47	.19	199	3.90	.41	.32
	Junior college~	213	3.54	.63		211	4.03	.48		210	3.90	.40	
Job	None	309	4.04	.46	.00	316	3.57	.63	2.34	309	3.90	.40	.36
	Have	178	4.04	.51		182	3.48	.68		176	3.88	.43	

\*: p<.05

11)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저소득층인 경우가 자원절약에 적극적이라고 한 Van Liere와 Dunlap<sup>11)</sup>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또한 가족수가 적을수록, 취업주부, 주부 학력과 남편 학력이 높을수록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핵가족이 확대가족보다, 대도시에서 성장한 주부가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성장한 주부보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5. 가족환경변인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에 관련된 변인은 2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졌으며, 전체 설명력은 53.4%였다. 제 1요인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주택가 내에 소형 퇴비화 설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각 동마다 한 개씩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5분항으로 구성되며 이것을 재활용이라 명명했고, 제 2요인은 음식물 쓰레기는 썩을 수 있는 것만 분리해서 버리는 것이 좋다,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평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등의 2분항으로 감량이라 명명했다.

가족환경변인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의 전체값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재활용면에서는 가족수( $p < .05$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가족수가 5~6명인 경우가 1~2명인 경우보다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수가 많을수록 음식물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확대가족의 주부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낮은 점수를 보인 것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6. 식생활 의식과 식습관이 쓰레기 배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

식생활 의식과 식습관이 쓰레기 배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 9와 같다.

식생활의식과 식습관은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음식물 쓰레기 배출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8.** Correlation on dietary awareness, dietary habits, exhausting score, reduction and recycling of food waste products

Variables	Dietary awareness	Dietary habits	Exhausting score	Reduction and recycling
Dietary awareness	1.0000			
Dietary habits	.2514***	1.0000		
Exhausting score	-.1448**	-.4762***	1.0000	
Reduction and recycling	.2898***	.1595***	-.1397**	1.0000

\*\* :  $p < .01$  \*\*\* :  $p < .0.001$

**Table 9.** The effect of dietary awareness and habits on the exhausting, reduction and recycling of food waste product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Exhausting score of food waste products	Reduction and Recycling of food waste products
Traditional awareness		.079124(.152084)***
Rational awareness		.199325(.234185)***
Leaving habit	.214549(.278214)***	
Eating up habit	-.144251(-.248989)***	
Accurate cooking habit	-.175028(-.227273)***	
Constant	4.143439	2.835160
Adjusted R <sup>2</sup>	.22069	.08759
F Value	44.13983***	22.98500***

\*\*\*:  $p < .0.001$

식습관의 3요인 모두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기는 식습관은 쓰레기 배출과 정적인 상관( $p < .001$ ), 남기지 않는 식습관과 정확한 조리습관( $p < .001$ )은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과도한 상차림을 피하고, 적당히 먹을 양만큼의 음식을 준비해 남기지 않고 먹는다면 음식의 낭비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또한 식사준비시 식단작성과 식사계획을 세우고, 계량컵이나 계량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식사량을 준비하는 것 또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통적 의식형( $p < .001$ )과 합리적 의식형( $p < .001$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식물을 버리지 않고, 집에서의 식사를 즐기는 전통적인 의식을 가지는 것과 식품구매시 반드시 계획하여 구매 하는 등의 합리적인 의식을 가질수록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요약

대구 지역 주부들의 식생활 의식과 식습관이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및 감량과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주부의 평균연령은 42.1세였으며, 대부분 핵가족(83.2%)이었고 주부의 학력은 고졸이 52.5%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소득은 1,894,300원이었고 가족수는 3~4명이 56.8%, 5~6명이 35.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응답자의 63.3%는 전업주부였다.
2. 가족환경변인에 따른 식생활 의식의 차이를 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식생활 의식 전체는 주부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전통적 의식형은 주부의 연령, 주부와 남편의 학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50대 이상의 주부가, 주부와 남편의 학력이 낮을수록 전통적인 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적 의식형은 주부의 연령, 주 성장지, 가족수, 주부와 남편의 학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20대의 주부가 30대·40대 주부보다, 주부와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대도시에서 성장한 주부일수록 진보적 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3. 식습관 전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가족환경변인은 월평균 소득이었고 소득이 80만원 이상~130만원 미만의 경우가 230만원 이상의 경우보다 식습관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주부와 남편의 학력이 낮을수록, 전업주부일수록 남기지 않는 식습관 점수가 높았다. 정확한 조리습관은 가족환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음식물 쓰레기 배출은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수가 적을수록, 주부와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취업주부일수록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수가 많을수록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에 대한 의식이 높았다.
5.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기지 않는 식습관과 정확한 조리습관으

로 나타났으며 전통적인 의식과 합리적인 의식은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참고문헌

1. 이승신, 이혜임, 류미현 : 환경보전을 위한 소비자 능력, 소비자학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4(2), 73-96, 1993.
2. 김원만 : 한양대학교 환경과학 논문집, 2, 93-100, 1981.
3. 김정옥, 최광, 광천일 : 생태계 위기와 한국의 환경문제, 도서출판 따님, 1992.
4. 강성진, 노영화 : 쓰레기 감량을 위한 재활용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1.
5. 이상규 : 음식찌꺼기 퇴비화 기술,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6(2), 199-204, 1995.
6. 대한영양사회 : 가족건강을 위한 바른 식생활, 28, 1992.
7. 김양희 : 환경보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 에코페미즘,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3.
8. 홍기남 : 생활환경문제에 대한 주부의 소비자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1992.
9. 이정우, 황경혜, 정진희 : 도시주부의 생활환경문제에 대한 의식과 관리행동, 생활과학연구지, 숙대 생활과학연구소, 1994.
10. 안향아 : 주부의 환경문제 인식정도가 환경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4.
11. 최남숙 : 서울시 주부들의 환경교육과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4.
12. 홍혜숙 : 환경보전에 관한 의식 조사 연구 - 일반가정을 중심으로 -,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5.
13. 이영숙 : 일반폐기물 분리 참여도 결정요인분석,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1.
14. Bridgwater, A. V. et. al. (ed.) : Household Waste Management in Europe Economics and Techniques-, Van Nostrand Reinhold,

- 1981.
15. Wilson, David Gordon : Handbook of Solid Waste Management, Van Nostrand Reinhold, 1977.
16. 통계청 : 도시가계연보, 1995.
17. 손희정 : 생활쓰레기 분리 참여도 및 자원재활용 행동에 관한 연구, 대구대 가정관리학회지, 6, 28~52, 1994.
18. Van Liere, K. D. & Dunlop, R. E. : The social bases of Environmental concern: A Review of Hypotheses, Explanation and Practical Evidence, Public Opinion Quarterly, 44, 181~197, 1980.